



04 공감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

10 스포츠라이트

프로레슬링과 공정 경쟁

22 함께하는 풍경

스타트업 밋업 행사
& '넥스트라이즈 2020' 참여

40 팝업 정보창

함께 극복해요!
코로나19

통권 제464호 발행일 2020년 7월 6일 발행처 에스-오일 주식회사 홍보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92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제작 (주)디자인소호 02-514-5164 (주)성환인쇄 02-2273-0583

안내 일부 기사*의 게재를 잠정 보류합니다.

* <달리는 희망 주유소> <취미 연관 검색어> <가족 추억 공작소>

MADE 함께 만드는 가치

04

공감 동화

[협력] 피노키오의 모험

06

고전 속 핵심가치

[나눔] 급난지붕
어려울 때 깨닫는 벗

IN 우리 안의 성장판

08

습관의 기적

사색 깃든 시간 여행
[고전 읽기] 습관

10

스포츠타이트

정의로움이 전부다
[프로레슬링과 공정 경쟁]

12

읽고 듣는 오페라

읽고 듣는 오페라
<라 보엠> '그대의 찬 손'

14

언제나 건강

마음은 안녕한가요?
[정신·행동장애]

16

이달의 활력평가

7월 탐구영역 [안전]

18

터벅터벅 소도시

[알피니즘 본고장]
프랑스 샤모니





표지 속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

칭찬과 응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진심이 담긴 충고는 성장을 북돋는 자양분입니다.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 주인공은 거짓 속에 주변의 소중한 존재를 잠시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협력의 귀중한 힘으로 결국 인간의 마음을 갖습니다. 진정한 협력은 내적 깊은 곳까지 온전히 변화시킵니다.

*관련기사 4쪽

S-OIL
앞서나가는 에너지

22

함께하는 풍경

CEO 안전 회의·현장 방문
경영위원회 워크숍
스타트업 밋업 행사
& '넥스트라이즈 2020' 참여
제14회 S-OIL 챔피언십

30

주요 경영활동

'덕분에 챌린지' 동참
순직 해경 유자녀 학자금
& 공상 해경 치료비 전달
전사 경영설명회
2019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34

단신

보육원 청소년 후원 '드림 장학금' 전달
울산복지재단 이웃돕기 성금·백미 2억여 원 기탁
'달리는 외상센터' 닥터 카에 1억 후원

36

우수 협력업체

날코코리아
존크레인코리아
흥은철강

40

팝업 정보창

함께 극복해요! 코로나19

42

독자마당

22



28



30



31



24





제7화 [협력]

힘이 되는 동행

피노키오의 모험

글. 이일야<동화가 있는 철학 서재> 저자

작은 힘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룰 때 우리는 내면의 희열을 느낀다. 홀로 경험하는 즐거움보다 함께 성취하는 기쁨이 더욱 크다는 것을 깨달은 피노키오도 결국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난다. 타인과 공존하는 협력(Collaboration) 속에서 존재의 가치는 빛난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나무인형 <피노키오>는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로 현재까지 꾸준히 재구성되고 있다. 오늘날 전해지는 피노키오 이야기는 이탈리아 동화작가 카를로 로렌치니(Carlo Lorenzini, 필명 카를로 콜로디)가 1883년에 쓴 <피노키오의 모험>을 원작으로 한다.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썼다는 작가의 동기가 무색하게 원작은 다소 비극적이다. 월트 디즈니(Walt Disney)는 대중적인 애니메이션으로 각색해 피노키오를 친근한 캐릭터로 재탄생시켰다. <피노키오>의 함의는 정직이나 양심 같은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에만 머물지 않는다. 나무인형이 소년으로 변신하기까지 핵심을 꿰뚫는 두 가지 요건이 있다. 피노키오의 좌충우돌 모험에 등장하는 귀뚜라미 지미니 크리켓과 제페토 할아버지를 통해 ‘협력’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읽을 수 있다.



최고 Excellence

열정 Passion

정도 Integrity

협력 Collaboration

나눔 Sharing

우리는 한 팀으로 함께 일하며 지식과 기회, 경험을 공유하여 더 큰 성공을 이뤄냅니다.

함께 노 젓는 동반자

동화에서 피노키오의 협력자로 등장하는 지미니 크리켓은 “양심은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라는 울림 있는 메시지를 피노키오에게 전해주는 존재다. 피노키오의 양심이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직언을 서슴지 않는다. 피노키오가 유혹이나 위협에 빠질 때마다 나타나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아낌없이 격려한다. 피노키오가 결국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돌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캐릭터로 존재한다. 공동체 안에서도 크리켓과 같이 조언은 물론 때로 쓴소리를 통해 성장의 양분을 제공해주는 동료의 필요하다. 그는 함께 노 젓는 동반자로서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내가 널 돌봐줄게.
우린 서로를 돌봐주는 거야.”

<피노키오>* 중에서

* <피노키오>(김홍래 옮김·시공주니어·2004)는 이탈리아어 원역본으로서 원작 내용을 충실히 담았다. 원문 수위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을 독자로 권장한다.

지혜 보태는 조력자

동화 속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의 양심에 불을 켜는 등대지기다. 경험과 관록에 기초한 지혜는 한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큰 상어 뱃속에 갇힌 자신을 구하러 온 피노키오마저 고립되자 불을 피워 상어의 재채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사히 빠져나온다. 피노키오 역시 나무인형이 물에 뜬다는 점을 이용해 할아버지를 모시고 물 밖으로 나온다. 할아버지의 노련함과 피노키오의 숨은 능력이 합해져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한 배를 탄 공동체는 거센 파고 앞에서 헤안을 갖춘 선배와 용기를 북돋는 동료의 존재가 절실하다. 나뭇가지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뭉쳐놓으면 단단하다. 연약한 나무인형 피노키오가 두 협력자와 여정을 함께한 끝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 우리에게 전하는 깨달음이다. 🌟





핵심가치를 되새기며 부단히 나아갑니다. 사자성어에 얽힌 고전 이야기 속에서 핵심가치를 생각합니다.

急難之朋

어려울 때 깨닫는 벗

글. 박수밀(고전문학자)

— 진정한 벗의 기준

한나라 무제 때 책공(翟公)은 죄를 다스리는 고위 관리였다. 책공의 집 앞에는 그를 만나려는 사람들로 날마다 북적거렸다. 그러다가 책공이 죄에 연루돼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자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발길을 뚝 끊어버렸다. 하지만 얼마 뒤 다시 복직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책공은 세상 인심에 대해 크게 깨닫고 문 앞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써 붙였다.

“한번 귀해지고 한번 천해지자 사람의 정이 드러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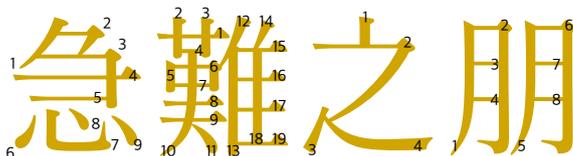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일부러 찾아오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자 가차 없이 발길을 뚝 끊어버린 데 대한 쓴 소리였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친구가 있다. 술자리에서만 손을 맞잡고 격의 없는 친구는 주우(酒友)라 한다. 눈앞에서만 아는 척하는 면우(面友)도 있다. 얼굴만 아는 형식적 관계의 벗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대개 모른 척하거나 멀리 피한다. 평소 가까운 줄 알았던 사람도 도움 앞에서는 매정하다.

핵심가치
[나눔] 편

급난지붕

급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



急 **급할급**
1. 급하다 2. 중요하다

難 **어려울난**
1. 어렵다 2. 꺼리다

之 **갈지**
1. 가다 2. 끼치다

朋 **벗붕**
1. 친구 2. 무리

— 집을 함께 지는 벗

<명심보감> '교우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술 마시고 밥 먹을 때 형 아우 하던 사람은 천 명 있으나,
위급하고 어려울 때 친구는 한 명도 없네
(酒食兄弟千個有 急難之朋一個無).”

평소 일이 원만하게 풀릴 때 웃고 즐기며 형 동생 하는 주식형제(酒食兄弟)는 많아도
급하고 어려울 때 힘이 돼주는 급난지붕(急難之朋)은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행은 누가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공자 역시 “날씨가
차가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고 했다. ‘대감 말 죽은
데는 가도 대감 죽은 데는 가지 않는다’는 속담도 같은 맥락이다.
누군가 삶의 심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진정한 친구와 허울뿐인 친구가 가려진
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고통을 겪을 때 처한 사정을 이해하고 고통을 공감해준다.
내게 급난지붕이 없다면 이웃이 어려워할 때 내가 먼저 외면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모든
분야가 어렵고 다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생존의 막다른 곳
에 몰린 이웃의 고통 강도는 더욱 크다. 지금이야말로 진정
한 나눔의 정신이 필요하다. 덜 힘든 사람이 더 힘든 이웃
을 돕는 급난지붕의 마음이 절실하다. 친구는 인디언 말로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다.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진짜 친구가 필요한 때다. 



핵심가치 [나눔] 되새기며
필사로 사자성어를 익혀보세요!

急難之朋

急難之朋

急難之朋

急難之朋

急難之朋

急難之朋



습관의 기적

새 습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 3주입니다. 긍정적 삶의 마중물이 될 이달 이 습관을 제안합니다.

사색 깃든 시간 여행

[고전 읽기] 습관

고전의 정의

고전(Classic)이란 용어는 라틴어로 '일류의', '규범에 알맞은'이란 뜻을 지닌 'Classicus'에서 유래했다. 문학에서 고전이란, 후대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역사적으로 그 위치가 인정되는 작품을 지칭한다.

고전의 구성요소는 세 가지다. 첫째, 과거의 작품이어야 한다. 둘째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갖춰야 한다. 셋째 후세에 모범이 되는 작품으로서 하나의 전통을 수립하고 그것을 지속시키는 데 뚜렷이 기여하는 작품이어야 한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미국 시인이자 작가 토머스 엘리엇은 그의 저서 <고전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고전의 조건으로 정신의 원숙, 언어의 원숙 그리고 보편적 문장의 완전성 등을 꼽는다.

추천 고전 12선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필독 고전 12선을 소개한다. 평균 한 달에 한 권씩 읽어 보는 것을 권장하지만 재미있고 분량이 짧은 고전들은 반복해서 읽어도 좋다.

<삼국지연의> 나관중

중국의 위·촉·오 세 나라의 역사를 바탕으로 전승돼 온 이야기들을 14세기에 나관중이 장회소설의 형식으로 편찬한 장편 역사소설이다. 오늘날 전해지는 삼국지 이야기들 대부분이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에서 비롯됐다.

<논어> 공자

중국 최초의 어록이기도 한 고전 중에서도 고전에 속하는 책이다. 압축되고 정제된 내용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전한다. 공자와 그 제자의 문답을 중심으로 공자의 발언과 행적, 발언 등 인생의 교훈이 담긴 말들이 간결하고도 함축성 있게 기재됐다.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

1951년에 발표된 장편소설로 작가의 체험을 소재로 쓴 성장 이야기다. 퇴학당한 한 소년 이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에 눈 떠가는 과정을 10대들이 즐겨 쓰는 속어와 비어를 사용해 사실적으로 묘사한 점이 특징이다.

<사기열전> 사마천

이른바 처세술에 기초한 내용들로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자기계발 서적이다. <삼국지>, <논어> 등 중국 역사를 배경으로 한 책들과 곁들여 읽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

<이솝우화> 이솝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읽거나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마치 속담 같은 짧고 굵은 이야기들이 우화 형식을 띄고 있어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전한다.

고전은 당대 지식인의 치열한 고민의 소산들이 온전히 담긴 책이다. 내면의 성숙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치기보다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매일의 고전 탐독 습관을 통해 사유의 깊이를 더한다면 풍성한 지적 재산을 쌓아갈 수 있다.

<신곡> 단테 알리기에리

이탈리아 시인 단테가 쓴 장편 서사시다. 1307년경부터 쓰기 시작해 1321년에 완성했다. 천국과 지옥, 선과 악의 개념, 사랑, 인간 공동체의 연대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했다. 완벽한 이탈리아어 기초로 이어진 작품이다.

<열하일기> 박지원

조선후기 실학자 박지원이 청나라에 다녀온 뒤 작성한 견문록이다. 방대한 분량이지만 생생한 여행기 속에 담긴 인물 묘사와 풍자 등이 지루할 틈 없이 흐른다.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죽음을 주제로 한 도스토예프스키 작품 중 최고의 걸작으로 알려진 책이다. 인간 속에 감춰진 욕망, 본능, 증오 등 어두우면서 심오한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다.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바티칸의 금서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 금서가 아닌 필독서가 된 고전이다. 당근보다 채찍을 강요하는 마키아벨리의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인지하고 읽으면 더욱 이해가 쉽다.

<삼국유사> 일연

우리나라 역사 중 큰 축을 차지하는 삼국시대와 고조선에서부터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나라의 흥망성쇠, 사건들이 잘 정리돼 있고 특히 민담이나 설화, 전설 등이 다양하게 등장해 흥미롭다.

<장자> 장자

자연적·철학적 고전의 정수로 불린다. 철학적 우화를 통해 재미있으면서도 심도 있는 문학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오딧세이> 호메로스

오딧세이아, 오딧세이, 오딧세이아, 오딧세이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모두 같은 인물을 지칭한다. 용기와 도전정신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좋은 지침서다. 현실과 이상 간의 간극, 결코 끝나지 않을 모험에 대한 이야기가 다채롭고 흥미롭다.

고전 읽기 가이드

필사독서법

- ① 하루 독서 분량 정하기
- ② 책에 밑줄 긋고 나의 생각 덧붙이기
- ③ 노트에 낱씨를 적고 가장 인상 깊은 문장 필사하기

고전 일기쓰기

필사독서법과 병행하면 좋은 습관이다. 하루 일기의 소재를 읽은 고전에서 도출한 뒤 필사 내용에 대한 생각을 풀어내고 일상에 적용해 일기를 쓴다.

반복과 암송

반복독서는 세종대왕과 영조, 공자 등 선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독서법이다. 언어의 맛을 음미하며 묵독, 낭독 등의 방법으로 반복한다. 필사한 부분이나 귀감이 되는 인생 구절이 있다면 암송해두는 것도 큰 자산이 된다.



정의로움이 전부다

프로레슬링과 공정 경쟁

글. 공규택<경기장을 뛰쳐나온 인문학> 저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메이저리그 요기 베라 선수의 명언처럼 스포츠는 근성과 열정의 산물이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도전의 끝을 판가름하는 것은 오로지 실력과 노력이다. 정직한 과정이 없는 경기는 스포츠로서 가치를 잃는다. 대중이 열광한 인기 스포츠에서 조작된 쇼라는 불명예를 안고 씩씩히 퇴장한 프로레슬링 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Professional Wrestling

● 그때 그 경기!

치열하고도 화려한 쇼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처럼 변변한 볼거리가 없던 1960~70년대, 프로레슬링은 전 국민을 끌어 모으던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 대중이 냉정하리만치 외면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있었다.

1965년 11월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진 프로레슬링 대회에서 우리나라 장영철과 일본의 오쿠마 선수가 경기를 벌였다. 1대1 상황에서 오쿠마가 장영철을 상대로 ‘새우껍기’라는 필살기를 시도했다. 공격이 계속되자 링 밖 동료들이 뛰어올라가 난투극을 벌였다. 경기는 중단되고 경찰이 출동했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장영철 선수는 그 내막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현장을 취재 중이던 기자가 이를 엿듣고 프로레슬링만의 독특한 경기방식을 외면한 채 “프로레슬링은 쇼!”라는 기사를 내보내며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다. 당시 대중은 프로레슬링 경기가 이미 승부를 정한 ‘쇼’라는 것을 알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1980년대 들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잇따라 출범하면서 프로레슬링은 대중에게서 차츰 잊혀 갔다.



스포츠 잡학사전

각본 없는 드라마의 묘미

흔히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한다. 결말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측할 수 없기에 결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느끼는 긴장감은 관중이 스포츠에 열광하게 하는 주된 이유다.

승부가 미리 정해진 경기에 대해 사람들은 스포츠 본연의 쾌감을 느끼지 못한다. 결과를 떠나 선수들이 진력으로 싸우며 뛰는 과정에서 희열과 감동을 느낄 때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오래 전 프로레슬링이 이미 짜인 각본대로 행해진 승부조작 경기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관중이 등을 돌린 것은 스포츠를 지지한 순수한 열정이 외면당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관중이 외면하는 순간 스포츠의 생명은 끝이다.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프로레슬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실이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스포츠 관련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 속 플레이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매체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채용 비리 관련 뉴스가 종종 등장한다. 사유로는 외부 청탁이 대다수다. 비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신뢰를 깨트리는 안타까운 사건이다.

조직 내 경쟁도 마찬가지다. 내정된 결과는 도전 가치를 훼손시키고 결국은 조직 구성원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열심히 해도 넘을 수 없는 벽에 가로막혔다는 허탈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힌 조직은 결코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

달린 기회와 불공평한 경쟁은 드라마틱한 기적이나 반전의 성과를 생산하지 못한다. 일할 맛 나는 직장은 투명한 신뢰성을 근간으로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조직이 바르고 단단하게 성장한다. 🌱



그대의 찬 손

모바일기로
QR코드를 찍으면
'그대의 찬 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라 보엠>

글. 정은주(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로돌포

이 조그만 손이 왜 이리도 차가운가요.
 내가 따뜻하게 녹여 주리다.
 열쇠를 찾아보지만 어찌시겠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선 찾을 수 없어요.
 다행히도 달밤이어서 여기 달빛이 곧 비쳐 드니 기다려 주세요.
 네 아가씨,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해도 되겠지요?
 내가 누구냐, 누구냐고요? 나는 시인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그래도 살아갑니다.
 거칠 것 없는 가난한 생활이지만 시와 사랑의 노래라면
 임금님처럼 사치스럽습니다.
 꿈과 환상으로 하늘에 그린 궁성에서 마음만은 백만장자입니다.
 이따금 내 금고에서 보석을 도둑맞습니다.
 2인조에게, 아름다운 두 눈이라는 도둑이.
 지금도 또 당신과 함께 들어와
 내 늘 꾸던 꿈은, 아름다운 꿈 모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립니다.
 허나 도둑맞은 것은 조금도 슬프지 않아요.
 대신 두고 갔으니까, 희망을!
 이제 나에 대한 것은 알았을 겁니다.
 자, 이젠 당신 이야기를 해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겠지요!

#Rodolpo

Che gelida manina, se la lasci riscaldar.
 Cercar che giova? Al buio non si trova.
 Ma per fortuna é una notte di luna,
 e qui la luna l'abbiamo vicina.
 Aspetti, signorina, le dirò con due parole
 chi son, chi son, e che faccio, come vivo. Vuole?
 Chi son? Chi son? Sono un poeta. Che cosa faccio?
 Scrivo.
 E come vivo? Vivo.
 In povertà mia lieta scialo da gran signore, rime ed
 inni d'amore.
 Per sogni, e per chimere e per castelli in aria,
 l'anima ho milionaria.
 Talor dal mio forziere ruban tutti i gioelli due ladri,
 gli occhi belli.
 V'entrar con voi pur ora, ed i miei sogni usati, e ibei
 sogni miei,
 tosto si dileguar!
 Ma il furto non m'accora, poiché, poiché v'ha preso
 stanza
 la dolce speranza!
 Or che mi conoscete, parlate voi, deh!
 Parlate. Chi siete? Vi piaccia dir!



자코모 푸치니(1858~1924)
이탈리아작곡가

베르디와 함께 이탈리아 오페라의 선구자로 불린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유명 음악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6세에 아버지를 여읜 뒤 생활고를 겪으며 성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를 접하고 음악의 길로 들어선다. 여러 노력 끝에 왕실의 후원을 받아 23세에 밀라노 음악원에 입학한 뒤 출세작인 <라 보엠>을 비롯해 <토스카>, <나비 부인> 등 걸작을 완성한다. 이탈리아 오페라를 근대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한 주도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아는 만큼 들리는
오페라 상식!

드라마틱 소프라노
(Dramatic Soprano)

극적인 박력을 갖춘 소프라노다. 고음역은 강인하고 빛나며, 중저음역은 풍부하게 노래한다.

포르타멘토
(Portamento)

같은 모음으로 높이가 다른 음을 아주 부드럽게 연결하는 창법이다. 레가토의 극적인 기술이다. 성악 이외에는 현악기 군과 트롬본으로도 이 주법이 가능하다.

<라 보엠> 작품 속으로

성탄 전야에 가난한 시인 로돌프가 자신의 연극 대본을 태워 불을 쬐고 있다. 그때 아래층에 사는 미미가 촛불을 빌리러 로돌프를 찾아오면서 운명처럼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진다. 비슷한 시기 로돌프의 친구 화가 마르첼로도 한때 사랑했던 여인 뮤제타를 우연히 만나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 그러나 두 달 뒤 로돌프와 미미, 마르첼로와 뮤제타는 각각 이별한다. 하지만 로돌프와 마르첼로는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한다. 공교롭게도 죽음을 앞에 둔 미미는 죄책감에 절규하는 로돌프를 만나 아름답던 시절을 추억하며 그의 곁에서 숨을 거둔다.



자전적 이야기와 현실적 무대구성

#1

가난한 예술가들의 사랑과 이별, 비극을 사실적으로 그린 프랑스 작가 앙리 무르제의 소설 <보헤미안 삶의 정경>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토스카>, <나비부인>과 함께 푸치니 출세작으로 꼽히는 이 오페라에는 실제 파리의 가난한 예술가로 살았던 푸치니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스며 들었다. 베리스모(1875~1895년경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사실주의 운동)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품답게 낭만주의나 신화 등 허구 소재는 일체 거부하고 오직 사실적 요소만을 묘사한다. 악곡 흐름도 깔끔한 구성으로 쉽게 나눈 것이 특징이다.

가난한 청년 예술가의 사랑 노래

#2

<라 보엠>은 총 4막(약 2시간)으로 구성됐다. ‘그대의 찬 손’, ‘내 이름은 미미’, ‘오, 사랑스런 그대’, ‘내가 혼자 거리를 걸어가면’, ‘사랑이여, 제게 용기를 주세요’ 등 아리아가 사랑받는다. 시인 로돌프는 테너, 미미와 뮤제타는 소프라노, 화가 마르첼로는 바리톤, 음악가 쇼나르와 철학자 콜리네는 베이스가 노래한다.

‘그대의 찬 손’은 로돌프가 어둠 속에서 실수로 미미의 손을 잡고 부르는 노래다. 차가운 미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는 로돌프의 마음이 애절하다. 아리아의 중반부는 쉽게 부를 수 없는 고음역이 등장해 테너의 역량이 돋보인다. 로돌프는 음역을 넘나들며 자신을 소개한다. 이어 미미가 ‘내 이름은 미미’로 답가를 부르며 가난한 시인과 가련한 여인의 사랑이 시작된다.

플루트와 바이올린 등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설레는 로돌프와 미미의 마음을 부드럽게 들려준다. 🌻



마음은 안녕한가요?

정신·행동장애

보통 건강을 생각하면
신체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현장을 보면 건강은
'신체·정신·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인 것'이다.
정신·행동장애는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현대인 두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자신의 내적 상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우울증 자가체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2018)한 연령별 상위 5개 질병을 보면 공통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1·2위로 꼽혔다.

아니다 0점 / 때때로 2점 / 자주 3점 / 항상 4점

- 의욕이 없고 우울하고 슬프다.
- 갑자기 울거나 울고 싶을 때가 많다.
- 잠을 잘 못자거나 아침에 일찍 깬다.
- 체중이 감소한 것 같다.
- 변비가 있다.
- 심장이 빨리 뛰거나 두근거린다.
- 이유 없이 나른하고 피곤하다.
- 안절부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 짜증이 많아졌다.
- 내가 죽어야 남들이 편할 것 같다.

아니다 4점 / 때때로 3점 / 자주 2점 / 항상 1점

- 하루 중 아침에 가장 기분이 좋다.
- 전과 같이 잘 먹는다.
- 이성과 이야기하고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 내 정신은 많다.
- 어떤 일이든 쉽게 처리한다.
- 장애가 희망적이라고 느낀다.
- 매사에 결단력 있다고 생각한다.
- 나는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이다.
- 내 삶이 충만하고 의미가 있다.
- 나는 매일 즐겁게 일한다.

*총점 50점 이하 : 정상 범위

*총점 50~59점 : 약한 우울증

*총점 60~69점 : 고도의 우울증

*총점 70점 이상 : 극도로 심각한 우울증

*자료 : 서울백병원 신경정신과

1월
심장
질환

2월
관절염

3월
당뇨병

4월
뇌혈관
질환

5월
악성
신생물

6월
간
질환

7월
정신·행동
장애

8월
호흡기
결핵

9월
신경계
질환

10월
갑상선
장애

11월
고혈압

12월
만성
신장병

정의

심신의 불안전

정신장애는 일반적으로 사물 판별·의사 결정 능력 등이 불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행동장애는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나 연령에 적절한 사회적 규준과 법을 침해하는 반복·지속적인 행동을 일컫는다. 세부적인 증상과 질환의 위중함에 따라 다양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10년 사이 환자 1.5배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경향' 분석(2020)에 따르면 진료연도 기준 최근 10년(2009~2018) 동안 정신·행동장애로 진료 받은 환자가 10년 새 1.5배 증가했다. 최근 5년(2014~2018)동안 정신·행동장애로 의료기관을 처음 방문한 환자 질환으로는 우울·불안장애·수면장애 순으로 많았다.

예방

주변의 각별한 관심

정신·행동장애 치료와 극복의 기본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에 대한 관심이다. 무엇보다 평소 심신을 다스리는 자가훈련을 통해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1. 긍정적으로 세상 보기
2. 감사하는 마음 갖기
3. 반가운 마음이 담긴 인사 건네기
4. 하루 세 끼 맛있게 천천히 먹기
5.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기
6. 누구라도 칭찬하기
7. 약속 시간에 여유 있게 기다리기
8.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 짓기
9. 원칙대로 정직하게 살기
10. 때로 손해를 봐도 너그럽게 넘기기

*자료 : 보건복지부

분류

정신장애

정신장애 분류	정신증	신경증
현실 판단력	뚜렷한 손상	정상
주요 문제	망상·환각·착란	감정 관련 불안 우울·강박
대표 질환	조현병(정신분열) 조울증·망상장애 해리성 정체성 장애	불안장애 우울증·강박장애 다양한 공포증과 스트레스 증후군
사회 적응	문제 있음	경과에 따라 상이
치료 방식	입원·통원 치료 병행	통원 치료

행동장애

소아기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틱장애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이하 ADHD)가 있다. 틱장애는 갑작스럽고 빠르며 반복·비율동적으로 나타나는 소리와 움직임을 말한다. 뇌신경·유전·환경·심리적 요인 등 원인이 다양하다. ADHD는 주의산만·과다행동·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과적 장애다.

검진

모두에게 열린 국립정신건강센터

신체 검진처럼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관리하는 정신건강 검진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구분	대상자	실시주기	
건강보험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만20세 이상 세대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2년/1회
	피부양자	만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2년/1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자	1년/1회 2년/1회

24시간 365일 전화 상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연중 무료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진료가 필요할 경우 보건소, 권역별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

· 자살예방상담전화 : 1393



7월

탐구영역 [안전]

피서

1. 다산 정약용 선생의 '소서팔사(消暑八事)' 속 여름나기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대자리에서 바둑 두기
- ② 나무그늘에서 그네 타기
- ③ 누각에서 투호 놀이
- ④ 계곡에서 수박 먹기

2. 물놀이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은?

- ① 물놀이 구역에서 체액 배출 자제
- ② 개인 차양시설 1m 간격 설치
- ③ 물놀이 용품 대여해 이용
- ④ 물놀이 뒤 공공 탈의실·샤워실 적극 이용

3. 휴가철 범죄 예방법으로 틀린 것은?



- ① 가정 내 TV나 라디오 ON & OFF 예약해두기
- ② 112 단축번호로 저장
- ③ SNS에 개인 휴가 정보 미리 게재
- ④ 낯선 사람이 주는 음료나 음식 정중히 사양

4. 폭염에 특히 주의해야 할 차량관리 3요소가 아닌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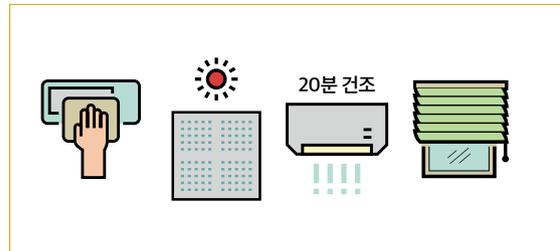
- ① 냉각수 점검
- ② 타이어 관리
- ③ 와이퍼
- ④ 차내 청소

일상

5. 여름철 보일러 관리 요령을 고르시오.

- ① 전원 플러그 빼두기
- ② 창문 닫고 일주일 1시간 가동
- ③ 배기통과 보일러 접속 상태 확인
- ④ 2년 주기로 보일러 내부 청소

6. 여름철 에어컨 곰팡이 관리를 위한 올바른 방법은?



- ① 한 달에 한 번 에어컨 필터 청소
- ② 청소한 필터는 햇빛 강한 곳에서 건조
- ③ 에어컨 끄기 전 송풍 모드로 20분 건조
- ④ 에어컨 가동 전 모든 창문 닫기

7. 냉방가전 화재 예방으로 잘못된 것은?

- ① 멀티탭 내부 먼지·이물질 제거
- ② 고속 충전기로 휴대용 선풍기 충전
- ③ 외출 시 플러그 빼두기
- ④ 냉방가전 타이머 설정

8. 냉방병을 예방하는 적정 실내 온도와 실내용 온도차를 고르시오.

- ① 실내 22~26℃, 온도차 5℃
- ② 실내 22~26℃, 온도차 10℃
- ③ 실내 15~20℃, 온도차 5℃
- ④ 실내 15~20℃, 온도차 10℃

정답·해설

1. ④ 계곡에서 수박 먹기

*자료 : 한국인문고전연구소

정약용 선생이 1842년 '소서팔사(消暑八事)' 시를 통해 읊조린 더위 식히는 여덟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송단호시(松壇弧矢 소나무단에서 활쏘기)
- 괴음추천(槐陰鞦韆 왜나무 그늘에서 그네 타기)
- 허각투호(虛閣投壺 빈 누각에서 투호 놀이)
- 청점혁기(淸簾奕棋 시원한 대자리에서 바둑 두기)
- 서지상하(西池賞荷 서쪽 못에 핀 연꽃 감상)
- 동림청선(東林聽蟬 동쪽 숲에서 매미 소리 듣기)
- 우일석운(雨日射韻 비오는 날 운자 뽑아 시 짓기)
- 월야탁족(月夜濯足 달밤에 물에 발 담그기)

2. ① 물놀이 구역에서 체액 배출 자제

*자료 : 질병관리본부

차양시설은 차양 끝 기준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물놀이 용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가급적 개인 숙소 탈의실·샤워실을 이용한다.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com)을 통해 초록, 노랑, 빨강색으로 해수욕장 혼잡도를 확인하고 사전 예약할 수 있다.

3. ③ SNS에 개인 휴가 정보 미리 게재

*자료 : 법무부

휴가 날짜 등 장기간 외출 여부와 장소를 SNS에 올리면 절도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사적인 정보 게재를 자제한다. '빈집 사전 신고제'를 통해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에 집 주변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4. ③ 와이퍼

*자료 : 도로교통공단

여름철 타이어 마모와 낮아진 공기압으로 인한 사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 점검한다. 100원 동전을 타이어 홈에 넣어 마모도를 측정할 수 있다. 냉각수는 한여름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요소다. 폭염 때는 차내 폭발성 물건이 없도록 수시로 청소한다.

5. ③ 배기통과 보일러 접속 상태 확인

*자료 : 행정안전부

플러그를 빼놓으면 보일러 수명이 줄고, 잔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실내 습기 제거와 곰팡이 번식을 막기 위해 1~2주에 한 차례씩 1시간 정도 창문을 연 상태에서 보일러를 작동시킨다. 배기통과 보일러 접속 상태를 확인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방지하고 6개월 주기로 보일러 내부를 청소한다.

6. ③ 에어컨 끄기 전 송풍 모드로 20분 건조

*자료 : 환경관리공단

곰팡이 배출을 감안해 에어컨 가동과 함께 5분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에어컨 필터는 최소 2주에 한 번씩 청소한다. 헝군 필터는 변형되지 않도록 그늘에서 충분히 말린다.

7. ② 고속 충전기로 휴대용 선풍기 충전

*자료 : 소방청전압

전압이 높은 고속 충전기(9V)는 과열 위험이 높아 가급적 사용을 피하고, 배터리 용량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한다.

8. ① 실내 22~26℃, 온도차 5℃

*자료 : 서울대 의대 국민건강지식센터

온도 변화가 5~6℃를 넘어가면 우리의 몸이 바뀌는 온도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인 22~26℃를 준수해 실내외 온도차가 5℃를 넘지 않도록 한다.



터벅터벅 소도시

세계 곳곳에 오랜 가치가 살아 있습니다. '본고장'으로 일컬어지는 국외 소도시 여행 정보를 제공합니다.

Travel Information

이동시간

인천공항~스위스 제네바
공항(비행기 약 13시간)

*모스크바 경유 시 2시간 추가

제네바 공항~프랑스
샤모니(리무진버스 약 1시간)

시차

한국보다 7시간 느림

화폐

유로(1유로 ≈ 한화 1,350원)

교통수단

트램, 버스, 기차, 케이블카

정상 향한

간절한 탐험

[알피니즘* 본고장]
프랑스 샤모니

글. 이영철(여행작가, <투르 드 몽블랑> 저자)

*고산의 정상 탈환과 함께 등정 과정, 등산을 둘러싼 인간 정신과 문화의 총체적 표현이다. 201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됐다.

몽블랑은 알프스 산맥의 절정이다. 240년 전 자크 발마와 미셸 파카르라는 두 청년이 세계 최초로 몽블랑 등반에 성공하면서 그들의 고향인 프랑스 샤모니는 '알피니즘(Alpinism, 알프스를 오르는 행위)'의 발상지가 됐다. 실제 몽블랑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도시인 만큼 해마다 각종 스포츠 경기가 치러진다. 등반 역사의 성지로 불리는 이 작은 도시에 하얀 열정이 가득하다.

인류 등반의 성지

인류 등반사에 중요한 사람이 있다. 스위스 출신의 식물학자 오라스 소쉬르다. 당시 산간 오지에 불과했던 샤모니에 식물 채집 차 방문했던 소쉬르는 해발 2,525m의 브레방에 올랐다가 넋을 잃었다. 그는 무명에 불과한 설산에 '하얀(Blanc) 산(Mont)' 몽블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신의 등반 실력으로는 정상까지 오를 수 없음을 깨닫고 '몽블랑 정상에 오른 이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는 공언을 남겼다. 그로부터 26년 뒤, 이 상금은 프랑스 청년 자크 발마와 미셸 파카르에게 돌아갔다. 이들이 알프스 최고봉인 몽블랑(Mont Blanc, 4,807m)에 오르기 전까지 인류에게 높은 설산은 경건한 신의 영역이었다. 두 사람이 인류 최초로 몽블랑 정상에 발을 디딘 1786년을 기점으로 가볍게 산을 오르는 행위에서 나아가 전문 스포츠로서 등산을 칭하는 알피니즘이 정립됐다. 전세계 설산들은 인류에게 두려움과 신비의 대상이 아닌 도전과 탐험의 영역으로 바뀌었고, 알피니즘은 유럽을 중심으로 큰 붐을 일으켰다.

샤모니는 프랑스 남동부 끝 스위스·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조그만 도시다. 두 청년이 역사적 모험에 나선 몽블랑 등정의 관문이다. '알프스'하면 스위스부터 떠올리지만 사실 유럽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프랑스 샤모니가 품은 셈이다. 정식 지명은 샤모니 몽블랑(Chamonix Mont-Blanc)이며 흔히 약칭인 샤모니로 부른다.



설산 두른
샤모니 명소

인류 최초의 등반가 두 사람의 이름을 딴 닥터 파카르 거리와 발마 광장은 샤모니의 변화가로 꼽힌다. 등반객들은 이곳에 이르러서야 알피니즘의 성지에 당도했음을 실감한다.

닥터 파카르 거리(Rue du Docteur Paccard)

300m에 불과한 짧은 거리지만 온갖 등산용품과 아웃도어 매장 그리고 다양한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즐비하다. 거리 한복판 3층 건물의 대형 벽화는 여행자들의 촬영 명소다. 샤모니 출신 등반가 이드 20인의 면면이 실물 착시를 일으킬 만큼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다.

발마 광장(Place Balmat)

닥터 파카르 거리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광장에는 몽블랑 정상을 바라보는 두 인물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무명 설산에 몽블랑이란 이름을 최초로 부여한 오라스 소쉬르와 광장 이름의 주인이자 몽블랑 최초 등정자인 자크 발마다. 마치 스승과 제자의 모습처럼 왼팔로 스승을 감싸 안은 채 오른손으로 몽블랑 정상을 가리킨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샤모니 북쪽의 브레방(Le Brevent, 2,525m)과 남쪽의 에귀 뒤 미디(Aiguille du Midi, 3,824m) 두 전망대에 오르는 케이블카 여정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다. 브레방 전망대에 오르면 오라스 소쉬르가 맨 처음 몽블랑 봉우리를 가까이서 마주한 날의 감동을 어렵잖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에귀 디 미뒤 전망대에서는 멀리 스위스 마터호른까지 이어지는 알프스 설산의 경관을 장쾌한 파노라마로 만날 수 있다. 🌄



7~9월은 등반 성수기

알프스는 7~9월 여름을 제외하고는 눈이 내리는 날이 많다. 이 시기에는 몽블랑을 등반하려는 전 세계 여행자들이 샤모니가 문전성시를 이룬다. 몸체만 한 등산 배낭을 메거나 산악자전거를 끌고 가는 여행자들이 북적인다.

샤모니 트레킹 코스

샤모니 주변 수백 개의 산길 중 4대 산길이 있다. '그랑 발콩 노드'와 '프티 발콩 노드', '그랑 발콩 수드'와 '프티 발콩 수드'다. '그랑(grand)'이란 이름이 붙은 길은 산세가 험하고, '프티(petit)'는 비교적 낮고 평탄하다.



함께하는풍경

최선을 다하는 동료와의 시간 속에 다채롭게 펼쳐진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방심 없는 안전 사수



CEO 안전 회의 · 현장 방문

글. 백선희(안전정책팀)
사진. 허재영(대외업무팀)



안전의 기본은 예방

재해 없는 사업장 달성을 향한 임직원의 헌신 속에 ‘안전’을 화두로 한 열린 소통이 이어졌다. 6월 19일 울산공장 임원회의실에서 진행된 안전 회의(Safety Town Hall Meeting)에서 후세인 알 카타니 CEO와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멤버를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은 응급처치(이하 FAI) 예방을 의제로 2시간여 동안 그룹 토론을 통해 개선 의견을 나눴다.

이날 다룬 FAI는 일반적으로 통원치료(Medical Treatment Care)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부상(경미한 긁힘, 화상, 상처 등)만을 포함해 후속 관찰 수준의 단일 응급 처치(First Aid)를 요하는 상태를 뜻한다. 낮은 수준의 사고부터 철저히 예방하면 결국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으며, 모든 사고는 예방 가능하다는 통찰을 토대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직원들은 폭넓은 의견 교환으로 현장에 적극 활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안전 강화에 부합하는 현실성 있는 방안들을 추려 나갔다. 알 카타니 CEO는 모든 절차와 규정에 대해 여지없이 완벽한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 캠페인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인식 개선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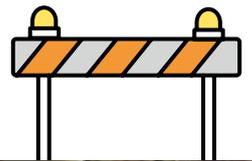
협력으로 완성하는 무재해

점심식사 뒤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안전 순회(Safety Walk-Through)가 실시됐다. 신 본관을 출발한 알 카타니 CEO와 임직원은 윤 활과 정유 공장의 조정실을 차례로 방문해 직원들과 만났다. 그 사이 조정실은 현장으로부터 문제 발생 시 울리는 알람 소리 없이 줄곧 고요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 상황을 인지한 알 카타니 CEO는 매순간 공정 안전운전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며 안도와 보람의 마음으로 임직원 모두와 공감대를 이뤘다.

안전 순회는 정기보수·점검(이하 T&I)이 한창인 제2중질유분해시설(#2RFCC) 현장으로 이어졌다. 이날도 직원들은 본격적인 더위와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맞물려 한층 엄밀한 안전 관리를 요하는 현장에서 시설 보수·점검에 갇힌 맘을 흘리고 있었다.

알 카타니 CEO는 현장에 잘 반영된 안전 관련 사항과 개선 상황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한 “안전은 혼자 담보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관리자의 탁월한 역량 발휘와 요건 절차의 철저한 수행을 강조했다. 특히 유지·보수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각 장소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정확한 담당 인력을 투입해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조언했다.

임직원들은 ‘변영의 다리’를 넘어 올레핀 공장의 T&I 현장으로 이동했다. 알 카타니 CEO는 신규 설비의 첫 보수·점검을 맞아 임직원의 브리핑에 귀 기울이며 진행 상황을 각별히 챙겼다. 아울러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들과도 소통하면서 안전 가치가 현장에서 잘 발현되도록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차세대 사업 현안 집중 논의

미래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이하 MC) 워크숍이 6월 26일에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2030년 우리회사가 갖춰야 할 사업 포트폴리오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오후 일정을 통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하고 있는 사회와 산업 환경의 격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근래 변화들이 향후 우리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통찰했다. 또한 치밀한 대응을 위해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각별히 의견을 나눴다.

2시간여에 걸친 전반부 프로그램에서는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김도원 서울사무소 대표가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주요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경영기획부문과 신사업부문의 신규사업팀에서 국내 경영환경의 변화, 경쟁사 벤치마킹, 'S-OIL DNA Assessment'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전기차, 무역분쟁 등 익숙한 산업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플라스틱 규제 등 최근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도 발제가 진행됐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분석한 내용들을 공유했다.

미래 향한 돌파구 모색

뒤이은 후반부 프로그램에서는 전반부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주요 트렌드의 현실화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현실화할 경우 우리 사업에 미칠 영향의 중대성에 대해 MC 멤버 간 논의가 이어졌다. MC 멤버는 전기차 확대, 탄소배출규제 강화, 석유화학 규제 확대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 영향력 역시 지대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더해 산업 환경 전망에 비춰 여러 과제에 대한 달성 방안을 논의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의했다.

치열한 성장 전략 모색

경영위원회 워크숍

글. 배진만(경영기획팀)
사진. 유지혜(홍보팀)





이번 MC 워크숍에서는 같이 참여한 일부 경영전략본부 임직원과 주니어보드 멤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내실을 더했다. 특히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위협·기회 요인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현재 우리가 처한 위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다듬는 좋은 기회가 됐다. 후세인 알 카타니 CEO는 워크숍 참여자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 회사를 위한 헌신에 고마움을 전했다. 아울러 “미리 변화하지 않고 상황에 떠밀려 변화를 강요당하게 된다면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계하며 “선제적이고도 유연한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



글로벌 에너지 산업 주요 트렌드

-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석유수요 둔화
- ✓ 전기차 확산 가속화
- ✓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하방압력 확대
- ✓ 친환경정책, 사회적관심 증가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탄소배출규제 강화
- ✓ 국가 차원의 개도국 설비증설로 정유산업 과잉공급 심화
- ✓ 판매 안정성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한 정유 소매플랫폼의 중요성 확대
- ✓ 글로벌 오일컴퍼니의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사업 투자 확대
- ✓ 무역분쟁, 제재 심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성장률·에너지 수요 둔화
- ✓ 미래 환경 적응을 위한 인재확보 경쟁 심화
- ✓ 9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국내 에너지 시장 변화
- ✓ 최저임금제, 근무시간 제한 등 국내 노동규제 강화의 영향



앞서 만나는 미래



스타트업 밋업 행사 & '넥스트라이즈 2020' 참여

글. 김태균(신규사업팀)
사진. 유지혜(홍보팀)

경쟁력 있는 신기술과 만나다

미래성장을 화두로 다양한 사업 기회와 가능성의 접점을 찾는 우리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회사는 서울창업허브(Seoul Startup Hub)와 함께 지난 6월 스타트업(설립 초기의 신생 벤처기업) 지원 협력의 일환으로 밋업(MEET UP)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울창업허브는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중소기업지원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로서, 지난 2월에 우리회사와 유망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회사는 스타트업 지원 관련 5개 기관들과 함께

서울시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차세대 유망 스타트업 성장 촉진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협력관계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밋업 행사는 미래에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 가운데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했다. 우리회사는 서울창업허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스타트업과 사업화 연계 기회를 열고 기술성장 지원과 투자가능성을 살폈다. 아울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무역협회 등이 지원 사격에 나서 사업화에 대한 실효성을 더했다.

행사는 6월 18일 서울창업허브(서울시 마포구)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벤처투자를 주





무하는 신규사업팀을 비롯해 본사 총 5개 팀 (영업전략팀·브랜드마케팅팀·멤버십마케팅팀·지속가능경영팀)이 참여해 13개 스타트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들 스타트업은 앞서 공모를 통해 서류를 제출한 총 33개사 가운데 선별된 기업이다. 인공지능(AI), 에너지·환경, 화학·소재, 모빌리티, 기타 등 다섯 개 분야에 걸친 공모에서 각각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너지·환경 4개사, 모빌리티 7개사, 화학소재 2개사)이 결선에 진출했다.

밋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내영업본부 영업전략부문 내 각 팀은 모빌리티 세션에서 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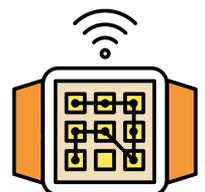
중한 심사에 열의를 쏟았다. 이들 결과를 포함해 이날 선정한 최종 3개사는 서울창업허브에 통보되고 순위에 따라 SBA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결선을 통과한 13개 기업이 SBA로부터 사무공간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규사업팀은 밋업 행사에 참여한 본사 각 팀과 함께 스타트업 투자와 협력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혁신의 실마리를 찾아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차세대를 향한 약속

뒤이어 6월 23일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Next Rise) 2020' 현장에도 우리회사 부스가 설치됐다. 이 행사는 한국무역협회와 KDB산업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한 가운데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과 벤처캐피털(VC) 90여개, 스타트업 400개가량이 참가하는 스타트업 박람회다.

현장 곳곳에서는 향후 성장 확대가 점쳐지는 푸드테크·헬스케어·게임·인공지능(AI)·빅데이터·모빌리티 등 분야를 중심으로 1대1 밋업이 진행됐다. 신규사업팀은 물론 앞서 서울창업허브에서 스타트업 심사에 참여한 국내영업본부 산하 팀들과 빅데이터팀은 스타트업과 밋업을 적극 진행하며 상호 발전적인 사업기회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끝나지 않은 승부



제14회 S-OIL 챔피언십

글. 이상민(브랜드마케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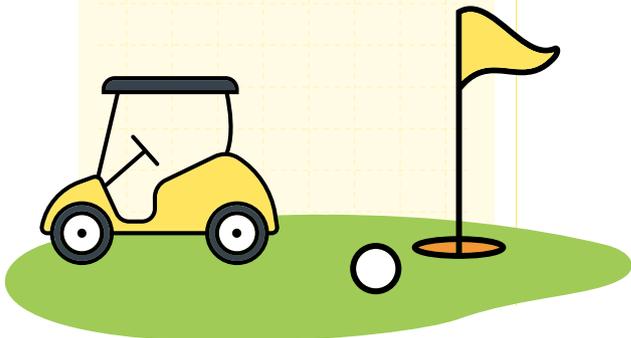
철저한 방역 속 열띤 경기

지난 6월 12일~14일 ‘제14회 S-OIL 챔피언십’이 개최됐다. 총 상금 7억 원, 우승 상금 1억2천600만 원 규모로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클럽(파72·6642야드)에서 진행된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갤러리 없이 무관중으로 치러졌다. 전원 체온 측정과 발열 검사 완료 스티커 부착, 문진표와 방명록 작성, 선수와 캐디, 미디어, 관계자의 동선 분리 등 매뉴얼에 따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새 SI(Station Identity)를 적용한 우리 계열주요소를 형상화시킨 ‘시그니처 홀(16번 홀), 역대 챔피언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Hall of fame’홀(18번 홀), 메달 형태의 홀 안내보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홀 보드와 마스크를 착용한 도일이 조형물 등 대회장 곳곳에 고유의 아이덴티티와 코로나 극복 메시지를 반영한 제작물들을 배치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번 대회는 ‘Queen of Queens’라는 대회 슬로건 아래, 세계 여자골프의 퀸들이 제주에 모여 진정한 퀸을 가리는 자리였다. 코로나19로 LPGA와 JLPGA 투어가 중단된 가운데 디펜딩 챔피언인 최혜진을 비롯해 이소영, 박현경, 임희정, 조아연 등 KLPGA 정상급 선수들은 물론, 김세영, 이정은6, 김효주, 이보미, 김하늘, 배선우, 배희경 등 해외파 선수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며 골프팬들을 설레게 했다.

6월 12일 우리 대회의 전통인 올림픽 콘셉트를 적용한 성화 점화를 시작으로 경기가 펼쳐졌다. 1라운드는 디펜딩 챔피언 최혜진 선수가 1위에 올라서며 흥미진진한 승부를 예고했다. 이튿날 2라운드에는 안개와 바람, 낙뢰 등으로 인해 5시간 지연된 12시에 첫 조가 출발해 일몰까지 출전 선수 120명 중 절반가량이 2라운드를 마쳤다. 선두에는 김지영2가 자리 잡았고, 9홀을 마친 최혜진이 한 타 차이 공동 2위로 다음날 선두 도약을 노렸다.



셋째 날 아침, 짙은 안개와 비가 이어졌다. 선수들이 장시간 현장에서 대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 시작 한 시간 이전에 미리 티오프 연기 공지를 했지만 매시간 연기 공지가 계속됐다. 결국 오전 9시 대회 조직위원회 대책회의에서 3라운드 진행 포기 결정을 내렸다. 남은 과제는 잔여 2라운드 36홀을 마치는 것이었는데 이후로도 짙은 안개는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후 3시 선수 대표까지 참석한 조직위원회 마지막 대책회의에서 16시에 경기를 재개해도 일몰까지 잔여경기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해 대회 중단·종료를 최종 결정했다.



아쉬움 뒤로, 선수 모두 응원!

36홀을 완료하지 못해 공식 대회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은 우리 대회 14년 역사상 처음이다. 규정에 따라 이번 대회는 우승자 없이 막을 내렸지만 이 또한 스포츠 이변이 선사하는 드라마틱한 기록이다. 최종 성적의 경우 모든 선수가 경기를 마친 1라운드 기준으로 8언더파 64타를 적어낸 최혜진(롯데)이 1위에 오르며 대회를 마치게 됐다. 단, 악천후로 공식 대회 요건에 부합하지 못함에 따라 최혜진은 대회 2연패 달성자로 인정받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우승자 대상 트로피와 우승자켓 수여는 진행되지 못했지만 2·3위에게도 메달을 수여해 스포츠 정신을 기리는 우리 대회만의 전통은 올해도 이어졌다. 최혜진이 금메달을, 카운트 백 방식을 적용해 전우리가 은메달, 이소미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상금은 KLPGA 규정에 따라 총상금 7억 원의 75%를 재원으로 상위 76명에게 분배율표에 따라 성적순으로 분배하고 나머지 하위 42명(아마추어 제외)에게는 10만6천250원씩 지급했다.

3일 동안 뜻하지 않은 악천후 속에서 마지막 대회 종료 선언 순간까지 함께 고생한 선수들에 대해 우리회사는 배려 차원의 조치를 취했다. 소액의 상금을 균등배분 받은 하위 선수들 42명에게 주유 상품권 50만원을 추가 제공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챌린지’ 동참

후세인 알 카타니 CEO를 비롯한 우리 임원진이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참여로 의료진을 향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에서 알 카타니 CEO와 임원들은 6월 23일 수어를 통해 한 목소리로 의료진에게 응원의 외침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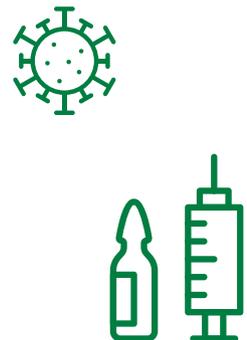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의료진을 향한 감사와 존경을 수어로 표현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공유해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다. 알 카타니 CEO는 오지철 하트하트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배턴을 이어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임원진과 함께 수어를 익히고 회의실에 도열한 알 카타니 CEO는 “방역 최전선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깊은 존경의 뜻과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우리 임직원도 사회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의료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회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이웃과 사회가 처한 고통을 나누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 5억 원을 전달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한편, 바이러스 대응에 지친 이웃을 응원하기 위해 하트하트재단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연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 #의료진덕분에
- #당신을존경합니다
- #수어_ '존경'
- #함께해요
- #덕분에챌린지
- #의료진덕분에
- #의료진을응원합니다





푸른 열정 무한 헌신

순직 해경 유자녀 학자금
& 공상 해경 치료비 전달



우리회사가 해양경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진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6월 10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에서 진행된 순직 해경 유자녀 학자금·공상자 치료비 전달식을 통해 총 1억 원을 전했다. 이번 지원금은 순직 해양경찰 유자녀 21명과 공상 해양경찰 25명을 위해 쓰인다. 아울러 우리회사는 유자녀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해양경찰의 임무는 실로 광범위하다.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 관련 범죄 예방은 물론 해양 수색·구조·연안 안전관리, 해양오염 예방·방제, 선박교통 관제를 비롯한 해양 질서유지 등이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해상 조난사고와 해상범죄 발생 현황(해양경찰청 정책자료 중 나라지표)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놓여있다. 그 최

전선에서 해양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일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투신한다. 우리회사는 2013년 민간기업 최초로 해양경찰청과 후원 협약을 맺었다. 위험상황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과 가족을 위해 다양한 해경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지속해왔다. 유자녀 장학금 지원뿐 아니라 공상 해경 치료비 지원, 영웅 해경 표창, 해경 부부 휴(휴) 캠프 등이 운영되고 있다. 🌟



위기 넘는 투명한 소통

전사 경영설명회



2020년 상반기 전사 경영설명회가 6월 9일 개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 사업장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이하 MC) 멤버 전원이 본사 보드룸·울산공장 대회의실에 자리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우리회사는 비전2025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영총과 직원 간 투명한 의사 개진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상반기 경영설명회를 시작했다. 이후 전사 경영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 기회가 열리면서 임직원들은 사업 추진, 경영 현황 등과 관련한 거시적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적 논의에 동참해왔다.

올해 경영설명회는 1분기 경영환경·실적, 향후 경영환경 전망, 우리회사의 대응 방안 발표에 이어 실시간 질의·응답 세션으로 밀도 높게 진행됐다. 특히 질의·응답 세션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직원들의 질문에 후세인 알 카타니 CEO를 포함한 MC 멤버 전원이 즉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호응이 높았다.

직원들은 전 지구적 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라 전례 없는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회사의 현 상황에 대해 적극 질문했다. 이에 경영진은 엄중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가감 없이 현황을 전달해 막연한 불안을 불식시켰다. 아울러 우리가 견지해온 불굴의 의지와 역량으로 위기의 파고를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에 힘을 실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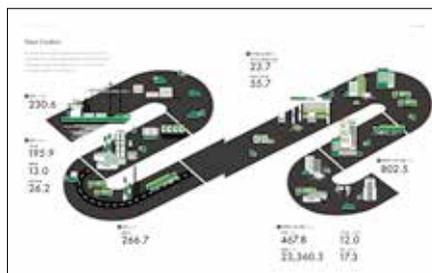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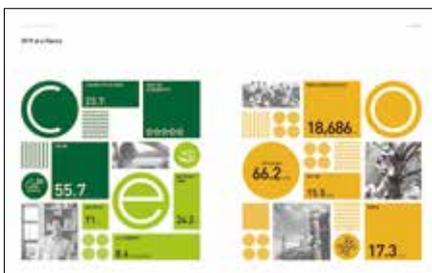
미래 향하는 발자국

2019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2019년 에스-오일 지속가능성보고서가 6개월 동안의 제작 과정과 외부기관 검증을 거쳐 7월 7일 발간(통권 13호)됐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나눔으로써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회사의 활동과 성과 중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높은 내용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설문조사, 인터뷰, 패널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최고 경영진 검토, 중대성 매트릭스 분석 등 체계적인 과정을 거친 끝에 27개 이슈를 선정해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는 비전2025와 'Corporate Initiative', 'Corporate KPI' 등 회사의 전략체계와 경영 활동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다. 내용 측면에서는 쉽고 빠르게 궁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인 C.E.O.(Customers, Employees, Owners & other stakeholders)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구성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주요 성과들을 별도 섹션으로 구성해 접근성을 높였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New Era', 'Sustainable', 'Transform'을 콘셉트로 설정해 정유회사에서 에너지·화학기업으로 성공리에 변화하는 모습을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친환경적 요소를 부가한 디자인으로 맑고 깨끗한 미래지향적인 회사의 정체성과 개성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고, 일러스트·인포그래픽·사진·절제된 컬러를 활용해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디자인을 구현했다.

이 보고서는 홈페이지(www.s-oil.com) 'Sustainability' 섹션에서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NEWS

보육원 청소년 후원 '드림 장학금' 전달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해나가는 보육원 청소년을 위해 우리 회사가 장학금을 전달했다. 6월 24일 본사에서 진행된 드림(Dream) 장학금 전달식에서 우리 회사는 한국아동복지협회 측에 보육원 청소년의 학업·자립을 위한 후원금 2억8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보육원 출신 전문대생 중 화학공학, 기계, 전기·전자 등 이공계 전공 학생 44명에게 각각 2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우리 회사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한다. 한편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70명에게도 중장비·컴퓨터·미용·제과제빵 등 전문 기술이나 자격증 습득을 돕기 위한 기술교육비 200만 원씩을 전달했다.

우리 회사가 드림 장학금 사업에 착수한 것은 2016년이다. 올해까지 총 14억8천만 원을 지원해 보육원 청소년 약 600명의 학업과 자립을 도왔다. 특히 드림 장학금은 일회성 기부를 넘어 지속적인 후원에 방점을 둔다. 아동 복지시설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 속에 잠재력을 발견하고 미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학습과 교육 기회를 통한 발판 마련을 보좌하고 있다.



울산복지재단 이웃돕기 성금·백미 2억여 원 기탁

울산복지재단이 사회복지기관·저소득 세대를 위한 성금과 백미 2억2천만 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전달식은 6월 9일 울산시 장실에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성금 6천500만 원과 9천800만 원 상당의 백미 1천715포(20kg 들이)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산지역 장애인 단체·시설 13개소와 저소득 세대에 전달됐다. 아울러 성금 5천700만 원은 보훈단체 9개소와 저소득 국가 유공자에게 지원된다.

우리 회사가 2007년 설립한 울산복지재단은 지난 14년 동안 지역농가 쌀 수매를 비롯한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장애인·보훈단체,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달리는 외상센터’ 닥터 카에 1억 후원

우리회사가 7월 2일 울산시청에서 진행된 ‘울산권역 외상센터 닥터카 후원금 전달식’을 통해 닥터 카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박봉수 사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정용기 울산대학교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닥터 카는 재난·교통 등 사고현장에서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 타임 내 전문 의료진 출동을 목표로 쓰인다. 차량 안에는 응급 처치나 전문 의약품 투여 시설이 완비돼 있어 ‘달리는 외상센터’로 불린다. 이를 통해 한 자를 현장에서 처치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해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우리회사가 닥터 카 지원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19년 4월이다. 울산대병원이 2016년 운영을 시작해 전국 단 2개 광역시에서 가동 중인 닥터 카가 예산 문제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에 울산광역시·울산대학교병원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억 원으로 운영 재개를 도왔다. 닥터 카는 지난 1년 동안 중증외상환자 20명을 위해 출동하고 최종 16명을 이송해 고귀한 생명을 살렸다.

NOTICE

사보 <S-OIL>에 정다운 추억을 남기세요

임직원 사연을 에세이로 기록해 드립니다. 편집실에 글과 사진을 보내시면 어엿한 콘텐츠로 게재됩니다.

글은 분야와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격의 없이 대강 작성한 글도 충실한 문문을 거칩니다.

송부하신 글과 사진이 실제 지면에 실리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주제

- #나홀로 또는 가족 여행기
- #자녀 또는 부모님 등 가족의 편지
- #각종 체험기·관람기
- #동기 또는 선후배 모임 후기
- #동호회 활동기
- #부서 또는 개인 업무 관련 사연
- #소소한 개인 일상 또는 단상 소개 등

글

워드문서 기본설정 기준 약 0.5~1면

사진

사진 4장 이상 원본파일 필수 제출

기한

연중 상시 모집

송고

sabo@s-oil.com

우리회사는 공급업체와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구매부문선정 우수 협력업체 인증 제도를 2019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선정된 우수 협력 업체에게는 1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수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우수 협력업체 인증에 이름을 올린 총 9개 기업을 연중 지면에 순차로 소개한다.

01

[축매·화공약품] 분야



날코코리아

NALCO KOREA

“에쓰-오일과 더불어 성장한 지난 10년을 거쳐 뜻깊고 의미 있는 상을 받았습니다.

차별화한 경쟁력을 토대로 사회적 가치창출까지 함께 일궈가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날코코리아 배시균 과장

다변화 발맞춘 확장된 기술·서비스

날코코리아는 물과 위생, 감염 예방 관련 솔루션 서비스 일환으로 특수산업 영역의 수처리와 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정유·석유화학 공정에 특화된 수처리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식(Corrosion), 파울링(Fouling) 등 화학 용액으로 초래되는 문제들에 대해 총체적인 기술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8년 감압증류공정(VDU) 냉각수의 미생물 관련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복합적인 요소에 대한 맞춤 솔루션 역량을 증명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최근에는 콘덴세이트분해공정(CFU)을 두고 유종 다변화에 발맞춰 관리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공정·생산에 걸친 현업 부서와 중지를 모았다. 디지털화(Digital Transformation)를 비롯해 보다 확장된 기술·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상호 신뢰를 쌓아 해결책을 함께 고안하는 포부도 있다.



7월 [축매·화학약품] 날코코리아
[기계·장치] 존크레인코리아
[배관] 흥은철강

8월 [전기·계장] 엘이씨코리아
[실험기기] 다솔인스트루먼트
[기타자재] 엘씨유니텍

9월 [공사·정비용역] 한국전기안전서비스
[설계감리·공사관련용역] 대아공조플랜트
[일반용역] 씨제이프레시웨이

02

[기계·장치]
분야



존크레인코리아

JOHN CRANE

“에쓰-오일의 성공과
존크레인코리아의
발전이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믿습니다.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된
것을 명예로운 가치로
기억하면서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존크레인코리아 김석순 부장

24시간 정밀 감독 적재적소 기술 지원

존크레인코리아는 영국 스미스그룹(Smiths Group) 소속 존크레인(John Crane)의 한국법인이다. 100여 년 역사 가운데 기계 밀봉·이음(Mechanical Seal-Coupling)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정유, 석유화학, 발전소 등 설비의 펌프·터빈 회전기에서 핵심적인 정밀기계 관련 제품과 독보적인 기술 엔지니어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우리 공장의 주요 펌프 내 기계 밀봉·이음 선정은 안전 운전의 초석이 된다. 이 가운데 존크레인코리아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공정 여건에 천착하면서 물품과 기술 지원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엄밀한 기술적 분석과 현장 운전 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잠재적 문제 제거에 집중한다. 글로벌 선진 기술을 두고 꾸준히 소통하면서 상보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03

[배관]
분야



홍은철강

“에쓰-오일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나아가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미래 발전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은철강 김영진 상무

참여한 현장 맞춤 엄격한 납기 관리

홍은철강은 석유화학을 비롯해 자동차, 건설, 조선 등 산업 전 분야에 사용되는 배관용 파이프 공급 기업이다. 현대 제철 강관(Steel Pipe) 지정 판매점으로서 2013년 9월부터 우리회사와 협업해왔다. 품질과 가격에 걸친 경쟁 우위를 토대로 우리 설비에 적용되는 배관용 강관 공급을 수행 중이다. 참여한 현장의 건설·유지보수 현장 상황에 맞춰 엄격한 납기 관리는 기본이다.

신규 공장 건설 등 성장 일로를 걷는 우리회사와 함께한다는 보람으로 두터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업 부서와 기술에 기반한 의사소통을 강화해 한층 향상된 제품군과 개발 추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도 굳건하다. 향후에는 보수·점검 계획에 따른 소요 물량을 엄밀히 파악해 선제 대응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07

JULY
2020

【 보직변경 】

6.16

최홍규(2급.구매관리팀)→구매팀

7.1

권범진(2급.품질관리팀)→품질관리팀
 화학품질파트리더
 황덕성(3급.품질관리팀)→품질관리팀 정유/
 유회품질파트리더(대행)
 정상우(2급.상해지사)→기유마케팅팀 기유
 국내영업파트리더
 송학석(2급.중부영업지원팀)→중부영업지원
 팀 중부네트워크관리파트리더
 김찬주(2급.동부영업지원팀)→동부영업지원
 팀 동부네트워크관리파트리더
 이승섭(2급.서부영업지원팀-광주지사)→
 서부영업지원팀 서부네트워크관리파트리더
 이재환(3급.시설투자기획팀)→프로젝트조정팀
 박용원(2급.네트워크개발팀)→소매관리팀
 이동학(2급.소매관리팀)→LPG팀
 오명국(2급.LPG팀)→LPG팀(전주지사)
 정재원(3급.직영네트워크관리팀)→LPG팀
 (부산지사)
 박우관(3급.LPG팀-부산지사)→LPG팀(동부
 영업지원팀)
 김희달(3급.LPG팀-동부영업지원팀)→LPG
 팀(서부영업지원팀)
 이진우(2급.강남지사) 공병수(2급.소매관리
 팀) 반철희(2급.강북지사) 김현호(4급.용인지
 사)→중부영업지원팀
 송규석(2급.구미지사) 박덕환(3급.대구지
 사)→동부영업지원팀
 곽창규(2급.대전지사) 박종태(4급.전주지
 사)→서부영업지원팀
 장홍진(2급.인천지사)→강남지사
 정진배(2급.중부영업지원팀)→강북지사
 이석필(2급.동부영업지원팀) 황영기(3급.안
 동지사)→구미지사
 이훈남(2급.수원지사) 윤도현(4급.아산지
 사)→남양주지사
 이항남(5급.동부영업지원팀)→대구지사
 신해식(2급.인천지사)→수원지사
 이병석(2급.청주지사) 김수현(4급.남양주지
 사)→아산지사
 손상현(2급.포항지사)→안동지사

조시용(2급.원주지사) 한인수(2급.중부영업
 지원팀)→용인지사
 황봉용(2급.부산지사)→울산지사
 주민규(5급.중부영업지원팀)→원주지사
 김수용(2급.강남지사) 정일(2급.멤버십마케
 팅팀)→인천지사
 이인석(3급.서부영업지원팀)→전주지사
 김기환(2급.서부영업지원팀) 황인필(5급.서
 부영업지원팀)→청주지사
 정호필(2급.울산지사)→포항지사
 서호경(2급.브랜드마케팅팀)→수송팀(본사)
 이종주(3급.유회R&D팀)→유회유사업팀
 김태훈(1급.유회유사업팀리더)→유회R&D팀
 리더
 윤계상(1급.유회유사업팀) 이원일 박준영(4
 급.유회유사업팀)→유회R&D팀
 김형철(1급.계기1팀리더)→Defect Elimination팀
 김성호(1급.안전대응팀리더)→안전대응팀
 박기홍(1급.품질관리팀리더)→품질관리팀
 박병민(1급.생산IT지원팀리더)→생산IT지원팀
 남현진(계장. Alkylation1팀)→Alkylation1팀
 교대과장
 강용석(계장.연차보수팀)→자재관리팀
 정관식(과장.인천저유소 관리담당)→인천저
 유소 관리담당 주간과장

7.6

김민경(일반사무직3급.환경관리팀)→연차보
수팀

8.1

백수옥(2급.브랜드마케팅팀)→대리점영업팀

【 팀리더·저유소장 임명 】

7.1

이준희(2급.Defect Elimination팀)→계기1팀
 리더
 이혁진(2급.기계설계팀)→장치2팀리더
 박주용(2급.기계설계팀)→자재관리팀리더
 홍성길(2급.안전대응팀)→안전대응팀리더
 강동일(2급.품질관리팀 정유/유회품질파트
 리더)→품질관리팀리더
 이상준(2급.경영개선팀)→원유용선팀리더
 이욱용(2급.프로젝트조정팀)→시설투자기획

팀리더

김진산(2급.생산IT지원팀)→생산IT지원팀리더
 하종태(2급.인천저유소 관리담당 보직과
 장)→군산저유소장
 손수홍(2급.기유마케팅팀 기유국내영업 파
 트리더)→유회유사업팀리더
 김현우(2급.지속가능경영팀)→Basic
 Chemical운영팀리더
 이재규(2급.세무팀)→세무팀리더

【 해외유학 파견 】

6.19

김영규(2급.수급운영팀)→인력개발팀 부(휴직)

【 입사 】

6.29 변강욱(3급.CISO)

【 결혼 】

6.21 조수범(제품운영2팀)

6.27 김소원(이익개선팀)

박종진(기획분석팀)

6.28 김종대(RFCC1팀)

지민규(제품운영1팀)

7.5 장준석(아로마틱영업팀)

박세준(저유관리팀)

7.11 이건구(올레핀송유/동력팀)

안혁(Hydrocracker팀)

7.12 허강희(Hydrocracker팀)

7.19 황중학(정유2팀) 아들

7.25 임진엽(안전대응팀)

【 부음 】

6.6 권재현(제품운영2팀) 병모

6.8 최성환(RFCC1팀) 조부

6.15 홍영목(수송팀) 부친

6.16 박정호(PX1팀) 모친

6.24 고문정(검사진단팀) 외조부

7.1 백성훈(탈황3팀) 병모

7.6 윤태근(제품출하팀) 모친

함께 극복해요! 코로나19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강화·완화)'와 '생활 속 거리 두기(강화·완화)' 등 단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기준과 명칭, 대응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거리 두기 기준·조치 사항을 명확히 숙지해 동참하기를 권합니다.



1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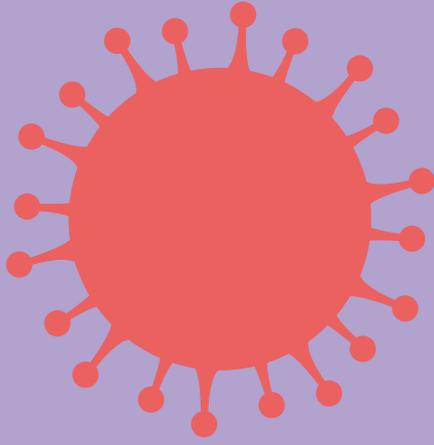
등교
가능

재택근무
권장

모임
허용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 ▶모임·행사 허용
-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 ▶공공·민간 다중이용시설 운영 허용
- ▶공공기관·기업 유연·재택근무 등 근무밀집도 최소화(전 인원의 1/3)
- ▶민간기관·기업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등교 & 원격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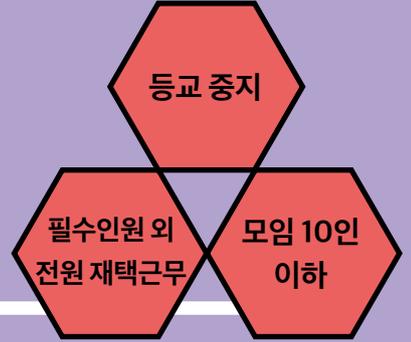
2 단계



일일 확진자 수 50~100명 미만

-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 ▶ 스포츠행사 무관중으로 진행
- ▶ 공공·민간 고/중위험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 공공기관·기업 근무인원 제한(전 인원의 1/2)
- ▶ 민간기관·기업 근무인원 제한 권고
- ▶ 등교 인원 축소(원격수업 유지)

3 단계



일일 확진자 수 1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 수 2배 증가하는 경우가

주 2회 이상 발생 시

- ▶ 10인 이상 모임 금지
- ▶ 스포츠행사 중지
- ▶ 공공·민간 고/중위험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 공공기관·기업 전원 재택근무 *필수 인원 제외
- ▶ 민간기관·기업 전원 재택근무 권고 *필수 인원 제외
- ▶ 전체 원격수업 또는 휴업





독자마당

사내보 <S-OIL>은 사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지면에 참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문의: sabo@s-oil.com



<습관의 기적> 디지털 휴식 습관

휴대폰 사용을 줄이자는
기사 내용을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김혜영(탈황2팀 진대중 사우 가족)



<언제나 건강> 간 질환

최근 건강검진에서 간이 언급됐는데
기사를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많습니다.
이성범(Hydrocracker팀)



<이달의 활력평가> 가정

강제로 '방콕' 중인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퀴즈를 풀었습니다.
한재수(제주저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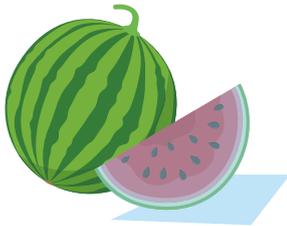
이달의 퀴즈

Quiz 01. 생활안전 아이콘

여름철 올바른 음식보관 방법은?

①

남은 수박 비닐 랩 씌워 보관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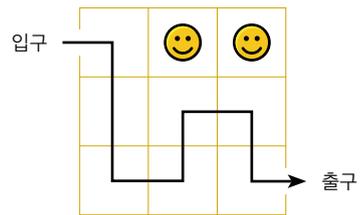
까지 않은 마늘·감자 그늘진 실온 보관



Quiz 02. 즐거운 두뇌 훈련

<보기> 그림처럼 연필을 떼지 않고
한 번에 모든 칸을 거쳐 입구부터 출구까지 선을 이어보시오.
(단, 장애물과 대각선 이동은 피해야 하며, 선을 중복해 겹쳐 지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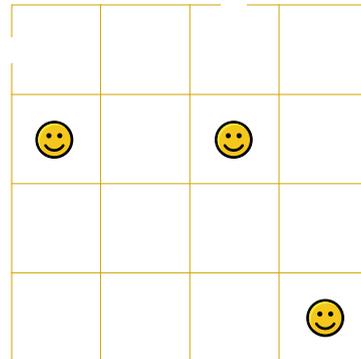
<보기>



출구

<문제>

입구



*자료 삼성서울병원 뇌 신경센터 '뇌 훈련 퀴즈'



<터벅터벅 소도시> 조지아 카페티
우연히 펼친 사보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정민아(남경주유소-경북 영천시 대창면)



<두런두런 이야기방> 도서 <데미안> 독후감
해당 도서를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독후감이었습니다.
김은진(RFCC2공정팀)



<함께하는 풍경> 주유소 카카오페이 결제
우리 계열주유소에서 카카오페이 결제가 된다는
사실을 사보 기사로 알았습니다.
안성찬(계기1팀)

지난호 퀴즈 정답 · 당첨자

Quiz 01.

생활안전 아이콘 올바른 생활 속 거리 두기 방법은? → 정답. ② 현금 대신 카드 결제

구매 뒤 값을 치를 때 가능한 한 전자 결제방식(모바일페이, QR코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접촉을 최소화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한 좌석 띄워 앉고 차내가 혼잡할 경우 가급적 다음 차를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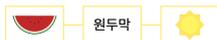
블루투스 스피커

강기태(탈황1팀)
김상덕(아로마틱2팀)
김광현(품질관리팀)
박종진(기획분석팀)

Quiz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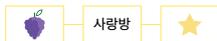
즐거운 두뇌 훈련 다음 그림과 낱말을 세 개씩 묶은 뒤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 외워보시오.
(정보를 학습·저장하는 과정을 통해 두뇌 측두엽을 활성화시키는 훈련)

*정답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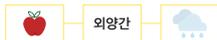
원두막

뜨거운 태양을 피해 원두막에서 시원한 수박을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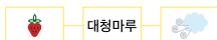
사랑방

별이 쏟아지는 밤 사랑방에 앉아 포도를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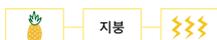
외양간

사과 한 입 베어 물자 갑자기 비가 쏟아져 외양간으로 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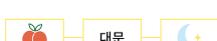
대청마루

대청마루에 앉아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딸기를 먹었다.



지붕

파인애플을 자르던 중 지붕 위로 큰 벼락이 내리꽂혔다.



대문

초승달과 복숭아를 좋아하시던 어머니가 지금이라도 대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만 같다.



올해 사보 표지는 핵심가치를 통찰해 볼 수 있는
동화 이야기를 소재로 그려나갑니다.

